

: 약소국의 비대칭 전략과 자율성 증가

함명식(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되는 제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결정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과 중국 두 동맹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동맹 이론이 주로 비대칭동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기, 연루, 착취, 정책결정 자율성의 상실 등 약소국이 당면하게 될 불확실성과 정치적, 외교적 취약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 글은 동맹의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비대칭균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칭균형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동맹의 약소국 정치지도자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병치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비대칭균형 이론은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안전보장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맞교환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동맹이론과 달리 비대칭균형을 통해 약소국 동맹국이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억제하는 중국에 맞서 핵실험의 단행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보완, 수정하였다.

I. 서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두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감행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2016년 1월 4차 핵실험 그리고 계속되는 장거리 로켓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 등으로 남북간 긴장의 고조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질서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대내 통치 수단과 대외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언제든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군사적 모험주의에 맞서 국제사회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 노력을 철회시키려는 압력을 행사해왔다. 수차례의 대북 제재 중 제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조치는 이전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진행된 제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맞서 중국이 보여 온 적극적 거부나 소극적 참여와 달리 금년 4월 제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추구하는 대북제재는 그 여파가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기업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중국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던 상당수의 금융계좌들이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¹⁾ 이런 공식적인 제재 효과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생계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예를 들어, 연변 지역 중국 식당에 진출해 노무생활을 하고 있거나 노래, 무용 교습소 등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의 제재로 인해 수입과 송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연변 지역 노동시장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 직군으로 북한 정부가 외화 조달을 목표로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 장수성 닝보우에 위치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과 산시성 웨이난시에 위치한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의 탈북 과정에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에서 보여지 듯 핵이슈와 관련 없는

1) 연변에서 진행된 복수의 인터뷰. 2016년 3월 15일.

사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관계를 설명할 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통념은 양국 관계가 “혈맹” 내지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것이다. 전자는 어려움에 처한 두 나라가 한국전쟁 기간 항미원조라는 기치하에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운 이후 “영구불변” 할 것 같은 두 나라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며 후자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중국에 대해 북한이 지니고 있는 군사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어떤 경우든 북한과 중국 양자관계를 매우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며 상호이익의 측면에서 서로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절대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과 지정학적 고려를 기반으로 북중관계의 특수한 측면을 강조하는 위와 같은 개념은 김일성 정권 시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때부터 김정일 시대 들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에도 두 나라 관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3대 세습이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계승과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 단계로 나아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한 국제적 인내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북한 체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중국 책임론이 국제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책임대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통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중국이 획득하고자 하는 국제적 리더십 향상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²⁾

그렇다면 역사적 경험의 공유와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중국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서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만약 북한이 중국의 국제사회 제재 동참을

2) Jae ho Chung and Myung-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p. 243-264; Xiangrong Dong, “China’s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2, 2013, pp. 243-255; Ming Liu,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2003, pp. 347-373; 최명해, 『중국북한동맹관계: 불변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예측했다면 중국의 핵실험 자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북중간에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이 이와 같은 정치적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핵실험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중관계에 대해 논의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나라 사이의 변치 않는 특수한 연대감과 정체성에 집착한 결과 동맹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기한 현상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달리 이 글은 비대칭 양자 동맹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북중관계에서 약소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강대국의 우위를 접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비대칭전략 행위”(asymmetric strategic behavior)를 추구하며 국가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논리하에 북중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북한이 비대칭적인 양자 동맹 관계에서 전략적 행위를 통해 자율성을 구가한다는 논리는 비대칭동맹관계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기존 동맹이론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논문은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의 북중관계로 한정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은 북한이 중국에 맞서 비대칭전략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규명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비대칭양자동맹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중관계 설명에 기반이 되고 있는 기존 동맹이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비대칭양자동맹에서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동맹이론의 풍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북중관계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설명하는 시각은 대체적으로 국제정치 이론의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실주의 접근법은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단순한 동맹관계를 뛰어 넘는 특수한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³⁾ 위와 같은 추론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이 피를 흘리

3) Jaewoo Choo,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olitical Ramifications,” *Asian Survey*, Vol. 48, No. 2, 2008, pp. 343–372; Thomas Plant and Ben Rhode,

며 함께 싸웠던 역사적 경험,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역할,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에 맞서 최전선의 역할을 추진하는 북한의 기능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과 중국이 동맹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두 나라 모두 상호 생존과 이익 확보를 위해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중국의 안보 우산을 필요로 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견제와 봉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완충지대로써 북한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추정이 북-중동맹의 불가변성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질서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냉전체제 하에서 동맹관계를 설명했던 핵심 이론들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내지는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세력균형 이론은 국제정치체제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소국들이 동맹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 군사적 힘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나 케네츠 왈츠(Kenneth Waltz) 등 현실주의 이론의 고전적 주창자들이 선호했던 세력균형 이론은 다극체제나 양극체제를 떠나 동맹이론의 핵심적인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⁴⁾ 세력균형 이론을 현실 국제정치에서 더욱 발전시킨 스테판 왈트(Stephen Walt)에 따르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치에서 국가들간의 제휴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요인은 기존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강대국이나 위협국가의 출현이다.⁵⁾ 다시 말해 강대국의 부상 자체만으로는 국가간 동맹형성의 요인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부상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될 때 위협에 맞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력균형과 위협균형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새로운 강대국이나 위협의 출현에 맞서 약소국과 그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이 동맹을 통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China, North Korea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Survival*, Vol. 55, No. 2, 2013, pp. 61-80;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05, pp. 64-99.

4)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Kenneth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3, 1964, pp. 881-909.

5)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Stephen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1985, pp. 3-43.

이러한 주장은 국가간 능력의 결집을 통해 서로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국력결집 동맹(capability aggregation model)이 동맹의 형성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구소련의 힘을 중심으로 양분된 냉전체제 동안 북중동맹은 위에서 언급된 동맹이론들에 의해 설명이 가능했다. 한국전쟁 기간 미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했던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맞서 힘과 국가 역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동맹형성과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즉,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체제에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북중동맹은 국력결집동맹의 분석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 시기 발생한 북한의 친중파 숙청 사건, 북한의 등거리 외교, 중국의대미관계정상화, 그리고 냉전의 종식 이후 일어난 한중관계 정상화 등 북한과 중국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정치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극체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그 여파가 작동하던 시기 북중관계는 안보라는 공통분모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공통의 가치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군사 안보적으로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상호협력력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다극체제에 비해 양극체제가 지니고 있는 우월성을 강조한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나 조앤 고와(Joanne Gowa)와 에드워드 맨스필드(Edward Mansfield)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⁶⁾

국가간 국력의 조합을 통한 안전보장 추구하고 안정적인 동맹유지의 전형적인 조건으로 양극체제를 강조한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냉전시기 북중관계를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탈냉전기 변화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맹간의 관계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미진함이 묻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냉전의 붕괴 이후 중국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오늘 날 한국 대외 수출입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중국 또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시장화의 심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깊숙이 편입된지 오래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미

6) Joanne Gowa and Mansfield Edward, "Pow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2, 1993, pp. 408-420; Glenn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61-495.

국이 창출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틀을 통해 상호협력과 교역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여기서 배제된 북한의 고립과 이로 인해 북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씨앗이 이미 상당부분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양국간 굳건한 동맹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양극체제의 붕괴는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함께 손잡고 맞서야 할 선명한 적의 존재를 희석시켰으며 이로 인해 공동으로 맞서야 할 위협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경제체제 편입 이후 급속히 부상한 중국과 개혁 개방을 포기한 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북한 사이에 동맹관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북한이 촉발시킨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관리하는 중국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지속하는 반면 중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가입을 통해 강대국화의 탄탄대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기존 동맹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임스 모로우(James Morrow)는 국력결집동맹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을 대체하는 분석 틀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security and autonomy trade-off) 모델을 제기하고 있다.⁷⁾

모로우에 따르면 비대칭 동맹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제공하는 안전보장은 정책결정시 약소국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냉전과 탈냉전시기 북중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역으로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김일성 정권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일으켜 친중 세력을 숙청했으며 김정은 역시 2015년 친중 성향을 보여 온 장성택과 그 일파를 처형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위의 두 사건은 북한정권 내부에서 친중국 성향을 보인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감행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양국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시도가 본격화 된 1993년 이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시도한 노력들이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갔음은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 파트너의 자율성을

7) Scott Bennett,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Alliance Duration, 1816-1984,"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3, 1997, pp. 846-878;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904-933.

제한할 수 있다는 모로우의 주장을 북중동맹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던 정치지도자들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대외적으로 등거리외교 등을 펼쳤던 역사적 사실과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지 못했던 최근의 사례는 지금까지 북중관계를 바라보았던 지배적 시각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한국의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에 그 책임을 돌리는 지적을 반복해왔다.⁸⁾

이런 주장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의 존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거나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은 비대칭 양자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의 제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개발로 촉발된 북중관계의 갈등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외교적 자율성의 약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모로우 주장의 논리적 패착과 함께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오히려 중국의 외교능력이 북한에 저당잡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중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해 과도하게 평가했던 기존의 분석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비대칭 양자동맹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던 논의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중동맹을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입장들이 북중관계에서 동맹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설적이게도 동맹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주의 이론의 맥락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국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동맹의 근원은 바로 국제정치의 무질서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이 일시적 안전보장의 수단일 뿐 영원불변한 진리일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중관계를 연구했던 많은 문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치체제의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동맹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도외시 한 채 북중관계를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국가간 정치철학으로 간주하는 착시현상에 매몰되어 있다.

8)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진보 진영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예상에서 비롯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크(David Lake)의 분석에 따르면 냉전 기간 미국과 유럽 동맹의 표본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무정부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국제정치 형태에 불과했다.⁹⁾ 레이크는 미국이 구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미국이 구소련이 공산권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동맹체제인 바르샤바조약기구 보다 느슨한 형태의 동맹시스템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허용했고 이는 동맹 국가 사이에 경쟁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했다. 이와 같은 무정부 상태는 동맹 국가간 자구(self-help)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맹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미국은 동맹유지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구소련은 억압적인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국가 자율성의 상실이 구공산권 국가들의 자구능력을 저하시켰으며 동맹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할 구소련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 논의를 북중 동맹에 적용한다면 북한과 중국 관계 또한 국제정치의 무질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불과하며,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북중관계 동맹의 영구불변성을 가정하는 시각이 지나는 또 다른 오류는 중국의 이익을 구현하는데 있어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제공하는 완충지대로써의 기능은 아직까지 그 역할이 충분히 인정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급속한 확장과 이 과정에서 서의 역할 증대를 통해 중국이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이 감수해야 할 손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을 보호함으로써 손에 질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전말은 동맹의 시간만으로 북중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문의 여지를 제공한다. 브랜트리 위맥(Brantly Womack)의 논의처럼 세계화의 심화와 상호의존의 증가로 인해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분점하는 양극화가 아닌 국제질서라는 하나의 축 위에 다수의 국가가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는 맞줄 묶음(multinodes)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⁰⁾

9) David Lake,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0, No. 1, 1996, pp. 1-33.

10) Brantly Womack, "China's Future in a Multinodal World Order," Pacific Affairs, No. 87, No. 2,

국제질서에서 중국이 수행하는 역할의 증대와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중국과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¹¹⁾의 주장처럼 중국이 미래 전략적 자산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원을 통해, 동맹국과 적국에게 중국의 의지(alliance credibility)를 확신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안보 관계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세계와의 상호의존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III. 북중관계 분석의 대안적 개념 : 약소국의 비대칭균형 전략

1. 비대칭균형의 개념

비대칭¹²⁾양자동맹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강대국 동맹 파트너에 의해 약소국이 직면하게 될 연루, 방기, 착취, 자율성의 상실 등 다양한 압력과 불합리성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동맹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한 국내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비대칭 양자 동맹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 장은 북한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정치환경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비대칭 양자동맹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비대칭 양자동맹관계의 변화, 즉 북한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자율성 증가를 의미한다.

자율성의 증가는 비대칭 양자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대국 동맹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을 받거나 중국의 이익을 고려해 수동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역으로 중국에 대해 약소국이 수행할

2014, pp. 265-284.

11)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p. 173-203.

12) 국제정치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관계를 단순한 힘(power)의 불균형 상태가 아닌 “관계의 상대성”(relative relationship)의 시각으로 해석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 Brantly Womack, *Asymmet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Brantly Womack, “How Size Matter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symmetr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4, No. 4, 2001, pp. 123-150

수 있는 “비대칭균형”(balance of asymmetry) 전략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외갈등에 연관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이익을 옹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셸링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자들은 동맹에서의 강대국은 약소국 동맹 파트너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경쟁하는 적국에게 동맹국에 위협을 가했을 때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이중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평판과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는 이와 상이한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써 “위협의 신뢰성”(threat credibiliy)을 확신시키기 위해 강대국이 약소국 동맹 파트너의 전쟁이나 분쟁에 개입한다는 셸링의 주장과 달리 북중 동맹에서 약소국인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여 강대국 동맹 파트너인 중국을 분쟁에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여왔다. 자국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바람과 달리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벼랑 끝 전술”은 국제적 리더로 부상하고 싶어하는 동맹국 중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배적인 동맹이론에 근거해 당면한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왜 비대칭 양자동맹의 약자인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의 근본 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 글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동맹의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하는 비대칭균형이라는 대안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비대칭균형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약소국이 자국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군사적 쟁점의 국내적 점화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동맹의 상대방이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며 강대국 파트너를 약소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쟁점에 연관시키는 주동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균형 개념이 자국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맞서 동맹의 추구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비대칭균형은 약소 동맹국이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적 이슈를 동원해 동맹관계에 있는 강대국을 자국의 분쟁에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2. 탈냉전기 균형 개념의 다양화와 비대칭균형의 차별성

스나이더나 빅터 차(Victor Cha)에 따르면 비대칭 동맹구조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 의해 초래되는 두 가지 위협인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¹³⁾ 방기란 동맹을 맺고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 동맹 파트너가 외부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연루는 약소국 동맹국이 강대국 파트너가 관련된 군사적, 물리적 충돌과 갈등에 타의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맹간에도 국가간 역량의 비대칭이 약소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이자 원론적으로 동맹관계 또한 무정부 상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맹이론이 국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보유한 집합적 국력의 중요성을 최우선시하는 현실주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까닭에 비대칭 상황에서 동맹 파트너의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는 항상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랫동안 국제질서를 지배해왔던 양극체제의 붕괴는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균형정책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¹⁴⁾ 예를 들어, 로버트 페이프(Robert Pape)나 티뷰 폴(T.V. Paul)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1차 이라크 침공을 전후로 하여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시도했던 연성균형(soft balancing)이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¹⁵⁾ 또 다른 사례로 카이 흐(Kai He)가 제기하는 것처럼 약소국인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세안을 활용하는 제도균형(institutional balancing)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초강대국을 대상으로 제도적 틀 안에서 강대국들이 시도한 연성균형과 달리 약소국의 집합체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제도

13) Victor Cha,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00, pp. 261-291; Glenn Snyder, *Ibid.*

14) 냉전 이후 세력균형에 대한 일반적인 논거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Jack Levy and William Thompson, "Balancing on Land and at Sea: Do States Ally against the Leading Global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7-43.

15) Robert Pape,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7-45; T.V. Paul,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46-71.

의 규범을 어떻게 공용화 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⁶⁾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비대칭균형은 위에서 지칭된 연성균형이나 제도균형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비대칭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조건의 차별화와 국내적 조건의 명시이다. 연성균형과 제도균형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새로이 인식되는 위협에 맞서 국가간 협력을 통한 대처방안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대칭 균형은 국제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국내정치적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모두 비대칭 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기하고 있다. 비대칭의 양자동맹 구조에 속해 있는 약소국 내부의 정치상황 변화가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때만 비대칭균형이 출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내적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최고 권력자들이 내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이나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칭균형을 추진하고 있다.¹⁷⁾ 셋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성균형이나 제도균형은 강대국이 일방통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제도를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해 기존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소극적이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비대칭균형은 상호간 지니고 있는 전략적 자산의 가치로 인해 동맹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약소 동맹국이 강대국 동맹국에 맞서 군사적 쟁점까지 활용하는 경성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고 있다. 넷째, 연성균형과 제도균형이 변화된 국제안보 환경에서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시도되는 것에 비해 비대칭균형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약소국이 강대국 동맹 파트너를 대상으로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된다는 점이다. 동맹의 강대국이 약소국의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쟁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제약을 가하려 할 때 약소국은 관련 이슈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동맹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이에 연관되게 만드는 전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약소국 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연성균형과 제도균형이 국제정치 안보환경의 변화 이후 집합적 국가군

16) He Kai,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3, 2008, pp. 489-518.

17) 국내 정치환경이 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teven David,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No. 2, 1991, pp. 233-256.

의 협력 형태로 나타나는 대외정책의 일환이라면 비대칭균형은 국내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이익을 국가적 이익과 병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연성균형이나 제도균형이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제도 활용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는 반면 비대칭균형은 군사적 쟁점의 국내적 점화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를 견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비대칭균형 개념의 유용성

비대칭균형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동맹을 설명하는 유효한 분석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새로운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 아직 중국 최고지도자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지도자가 김정은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자체가 김정은의 과도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따카운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오래된 동맹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압력에 부딪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국내적으로도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 이후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이 초래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김정은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통해 그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김정은이 강대국 동맹인 중국이 부가하는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정책결정에 대한 압력을 극복하고 정치지도자로서의 개인의 이익과 국익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자율성을 증가시켜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약소국인 북한이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한 원인과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입장을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역설은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IV. 비대칭균형으로 파악한 북한-중국 동맹관계 변화

혈맹으로 간주되던 북한과 중국 동맹관계의 변화조짐은 중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듯한 분위기에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제재참여는 표면적인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기 이전까지 북한과 중국이 보여 온 갈등과 균열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달리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비대칭균형에 따른 변주곡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중국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우선 방문했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7차례에 걸쳐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반면 김정은이 국가 지도자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간의 만남은 아직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권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동맹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전 의식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예외적인 현상이 혈맹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두 국가를 연결하고 있던 정치적 유대감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간 만남의 존재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이를 둘러싼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31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고위급으로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까지 북한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들을 주고 받았다. 이는 북한과 중국이 특수한 관계에서 벗어나 각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보통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주고받는 “갈등의 교환”은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고려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억제하려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맞서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강대국 동맹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자율성의 의지를 확고히 내비치는 것이다. 둘째, 여전히 동맹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북한 핵이슈에

연관시켜 북한에 대한 “전략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비대칭 양자동맹 관계에서 북한이 추후에도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임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을 북한 핵이슈에 연관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동맹으로서 북한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과 함께 자율성의 확장을 위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판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 북한동맹으로서 중국 역할의 감소

1) 이데올로기적 유대감: 건국 당시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 공산혁명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초창기 북한 지도자들은 항일투쟁과 공산혁명의 경험을 중국 지도부와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유대감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개혁 개방을 추구하고, 한국과의 국교까지 정상화하자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김정일 집권 당시 반복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의 추구를 권고했을 때도 김정일 정권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경제가 낙후되어 북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 할 지라도 중국 경제발전 노선을 거부하고 북한식의 자립경제 노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측으로서는 중국식 경제개혁이 초래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의 후폭풍을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시장 경제모델에 대한 북한 최고 지도부의 강한 거부감을 입증함과 동시에 북-중 동맹에서 차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¹⁸⁾

2) 안보의 보루로서 중국에 대한 신뢰: 북한은 냉전 기간에도 구소련과 중국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지는 외교를 추진하지 않았다. 등거리외교라는 용어에서 보듯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왔으며 이는 친중국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을 폄박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냉전시기 북한에게

18) Balazs Szalontai and Changyong Choi, “The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Comparisons with China, Vietnam and Yugoslavia,” *Europe-Asia Studies*, Vol. 64, No. 2, 2012, pp. 227-246; Daniel Bymann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44-74.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쌓인 북-중간의 신뢰는 양국 지도부의 지속적인 세대교체, 중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로의 깊숙한 편입, 냉전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피로감 증가, 북한의 끊임없는 중국 권고 무시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¹⁹⁾ 이미 다수의 중국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조-중우호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갱신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동맹조약의 유효성 문제는²⁰⁾ 북한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동맹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에 회의를 가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

3) 경제적 후원기지: 동맹의 또 다른 역할은 조약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장기간 지속된 고난의 행군과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며 정권의 생존에 기여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식의 전면적 개혁 개방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장마당 수준의 시장기능 허용만으로는 난국에 봉착한 경제를 타개할만한 획기적인 활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 집권한 김정은 정권으로서의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정도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국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현상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로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상 미래의 경제적 후원기지로써의 중국에 대한 신뢰와 가치는 그만큼 손상되었을 것이다.

2. 북한의 대중국 비대칭균형 목표

기존 동맹 이론에 따르면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약소국인 북한이 동맹국 파트너인 중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방기와 연루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위

19) 김홍규, 「새로운 북-중관계의 시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자오밍하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추수룡, 「북-중관계는 임계점에 도달했는가?」 각각 정덕구, 추수룡 편, 「기로에 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의 1장, 2장, 서문 2; 주평, 「북한의 핵 포기 3년도 안 남았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522/1>.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23252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45559>.

와 같은 예측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기의 측면만 부각한 결과이다. 오히려 비대칭동맹의 약소국으로서 북한이 강대국 동맹에 의해 자행될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만큼 이를 역으로 이용할 기회적 여건에도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대국인 중국이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상, 동아시아 정치 경제 지형도에서 주변국과 가지는 관계, 글로벌 파워인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고자 진행하는 수 싸움 등 중국이 현 지정학적, 지경학적 매트릭스 상황에서 처한 딜레마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북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이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프레임 안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책 설정과 전환 과정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비대칭 양자동맹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게임의 법칙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성 내지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추측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국에게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그리고 미국에게는 중국의 세력확장이 가장 첨예한 국제정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정치 안보환경의 변화²¹⁾가 북한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완충지대로써만 기능하기보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추구하고 있는 비대칭균형은 주로 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으로 인해 “전략적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²²⁾ 전략적 함정이란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로 곤경에 처한 중국이 동맹에 대한 지지도, 동맹으로부터의 철수도 단행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연관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적 함정과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을 억제하고 중국을 북한 편에 묶어두려는 시도를 말한다.

북한 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나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인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21) Aaron Friedberg,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Vol. 42, No. 3, 2000, pp. 147-159; Denny Ro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p. 149-168;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996, pp. 107-135.

22)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대중전략과 대남전략,” 『상균차이나브리프』, 43권 1호, pp. 70-75.

미국과 직접 대립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일당지배 구조의 공고화를 국가 이익과 동일시해 체제안정을 유지하려는 김정은에게 있어 이런 목표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가능성은 낮지만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또는 현상황에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내지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²³⁾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을 빌미로 대내적으로는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며 스스로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현재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국제정치 행위자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체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의 보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비대칭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된 상태에서 중국에 맞서 북한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역발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비대칭균형 노력이 그동안 위협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전략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어떠한 경우든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외교적 엇박자는 중국과의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외교정책의 자율성을 향상시켜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와 함께 핵개발과 협상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활용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이 글은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분석

23) 이러한 가능성은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미 거론된바 있다.

했다.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두 나라의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증가하는 역할을 요구받는 중국의 위상 변화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봉착해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속개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은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 형성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해왔고 이는 북중동맹을 특수한 관계에서 보통 국가 관계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대국가로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을 이룩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동맹국 중국의 핵보유국화 억제 정책에 맞서 자율성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는 기존의 동맹이론이 주장하던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정책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글은 북한이 추구하는 비대칭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변화하는 국제정치 안보환경과 약소국의 국내정치 상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설명했다. 이 논리에 기반을 둔다면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국내적으로 처한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환경을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우선, 동맹국으로서 북한 존재의 필요성을 중국에 각인시키고 중국을 북한의 대외적 이슈에 연관시키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압력을 감내하기 힘든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은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의 지원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그동안 외부의 위협으로 간주해 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으로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질수록 북한과 미국 간 극적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미국과 중국의 최대 관심이 남중국해로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거센 도전에 직면할수록 북한이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행동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구사하는 비대칭균형 전략은 단지 북-중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행위는 아니다. 냉전의 붕괴라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균형의 모습을 창출했으며 비대칭동맹 사이에서 약소국의 정치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등치시키면서 강대국 동맹을 대상으로 균

사 안보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냉전 종식 이후 코라손 아퀴노 대통령 시절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발생했던 미군 군사기지 이전 갈등, 테러와의 전쟁 이후 변화한 국제정치 안보환경을 이용해 키르기스스탄이 미국에게 마나스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해 러시아와 빛은 갈등,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미국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반환, 주한미군 주둔군방위협정(SOFA)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사실 등은 모두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강대국 동맹 파트너를 대상으로 보여준 비대칭균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대칭균형의 증가는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국제정치사의 고전적 명언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미래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경각심과 함께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Bennett, Scott,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Alliance Duration, 1816-1984,"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1, No. 3, 1997, pp. 846-878.
- Byman, Daniel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44-74.
- Cha, Victor,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Asi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No. 2, 2000, pp. 261-291.
- Choo, Jaewoo,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olitical Ramifications," *Asian Survey*, Vol. 48, No. 2, 2008, pp. 343-372.
- Chung, Jae ho and Myung-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p. 243-264.
- David, Steven, "Explaining Third World Alignment," *World Politics*, Vol. 43, No. 2, 1991, pp. 233-256.
- Dong, Xiangrong, "China's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2, 2013, pp. 243-255.
- Friedberg, Aaron, "Will Europe's Past Be Asia's Future?" *Survival*, Vol. 42, No. 3, 2000, pp. 147-159.
- Gowa, Joanne and Mansfield, Edward D., "Pow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7, No. 2, 1993, pp. 408-420.
- Kai, He, "Institutional Balancing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Balance of Power Strategies in South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 3, 2008, pp. 489-518.
- Lake, David,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0, No. 1, 1996, pp. 1-33.
- Levy, Jack, and William, Thompson, "Balancing on Land and at Sea: Do States Ally against the Leading Global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7-43.
- Liu, Ming,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2003, pp. 347-373.
- Morgenthau, Hans,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 Morrow,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04-933.
- Pape, Robert,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7-45.

- Paul, T.V.,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46-71.
- Plant, Thomas and Ben, Rhode, "China, North Korea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Survival*, Vol. 55, No. 2, 2013, pp. 61-80.
- Roy, Denny, "Hegemon o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p. 149-168.
- Schelling, Thomas,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Segal, Gerald, "East Asia and the 'Constrai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4, 1996, pp. 107-135.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Asia: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2004/05, pp. 64-99.
- Snyder, Glenn,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61-495.
- Szalontai, Balazs and Changyong, Choi, "The Prospects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Comparisons with China, Vietnam and Yugoslavia," *Europe-Asia Studies*, Vol. 64, No. 2, 2012, pp. 227-246.
- Walt, Stephen,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Walt, Stephen,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1985, pp. 3-43.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 Waltz, Kenneth,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3, 1964, pp. 881-909.
- Womack, Brantly, *Asymmet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Womack, Brantly, "China's Future in a Multinodal World Order," *Pacific Affairs*, No. 87, No. 2, 2014, pp. 265-284.
- Womack, Brantly, "How Size Matter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symmetr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4, No. 4, 2001, pp. 123-150.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대중전략과 대남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43권 1호, pp. 70-75.
- 정덕구, 추수룡 편, 『기रो선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정책 달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 최명해, 『중국북한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2. 인터넷 자료

- 주평, "북한의 핵 포기 3년도 안 남았다" <http://news.donga.com/3/all/20160513/7807152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232527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445559>.
- <http://atimes.com/2015/10/recalculating-the-north-korea-equation>.

Abstract

Asymmetric Allia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Reconsidered
:Balance of Asymmetry and the Increase of a Smaller State's Autonomy

Ham, Myung-Sik(Jilin University)

Since the four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hina has actively supported the sanction of the United Nations on North Korea. Considering China's previous efforts to protect North Korea after the latter's repeated military adventur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raises the question why China changed its behavior from protection to sanction.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y played a critical role to bring about China's different reactions towards North Korea. Unlike contemporary dominant alliance theories which emphasize the disadvantages of a smaller country in asymmetric bilateral alliance, this article contends that whe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and a political leader of a smaller country in the alliance system confronts domestic challenges, it is able to organize balance of asymmetry strategy against the strong counterpart of the alliance. Current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an be an appropriate example to apply balance of asymmetry strategy. Kim Jungeun faced insecurity in consolidating his position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successio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domestic situations surrounding Kim Jungeun made it possible for him to perform balance of asymmetry strategy against a long-term blood-hood brother, China, in order to increase autonomy and assure his power.

Key Words : North Korea-China alliance, Asymmetric bilateral alliance, Balance of asymmetry, Autonomy of a smaller state, Kim Jungeun regime, North Korean nuclear.

: 2016 6 24	•	: 2016 7 19	•	: 2016 8 25
-------------	---	-------------	---	-------------